

이슈브리프 538호
(2024. 4.19)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방북과 북한의 관심사

제538호

이기동 북한연구실



국문초록

북한과 중국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시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한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의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양국의 상호 관심사들 중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관련 관심사들은 무엇이고, 어떤 의견들이 교환되었을지 추론하였다. 첫째, 북한은 대남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중국의 공감과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반제, 반미'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취지를 설명하였을 것이다. 셋째, 중러북 연대에 미온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을 3자 연대로 견인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이를 위해 단기적이고 전술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불일치에 대한 상호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안보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金正은의 올해 방중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이번 자오러지의 방북을 계기로 중북 간 고위급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중북 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외교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 고위급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핵심어 : 자오러지 방북, 중러북 연대, 대남정책 전환, 경제지원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2박 3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쳤다.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북은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거의 5년 만에 성사된 정치국 상무위원급(당서열 3위)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자오러지는 방북 기간 동안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4.11)하였고 김정은을 접견(4.13)하였다. 자오러지 방북의 형식상 취지는 양국 정상이 신년 축전 교환을 통해 결정한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필 정상회담의 연쇄 개최와 라블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 등 자오러지 방북 당시의 주변 동향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방북의 취지는 개막식 참석 이상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은 이번 방북을 통해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한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양국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 관심사들 중에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 관심사들은 무엇이고, 어떤 의견들이 교환되었을지 추론할 필요가 있다.

한국 관련 지역 및 국제적 관심사

첫째, 북한은 대남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중국의 공감과 이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대남정책 전환이 중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기조와 상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킴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각종 전략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소를 한반도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해 왔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의 전략도발을 생존전략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대응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적대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사변’과 같은 전쟁을 연상케 하는

북한의 공격적 태도에 대해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 기조상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공격적 발언들은 북한에 대한 상대방의 위협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한국과는 통일을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변하였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자칫 대만의 두 국가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반제, 반미’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취지를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김성남 당국제부장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방문하여 사회주의 당 대 당 외교를 전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노선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 노선과 합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제’ 노선을 가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일정한 역할분담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룡해는 ‘친선의 해’ 개막식 연설에서 “반제자주”를 언급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중국과 북한의 강국건설에 대한) 방해책동이 더욱 더 악랄해 질 것”이라면서 양국의 우의와 단결을 강조하였다.

셋째, 중러북 연대에 미온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을 3자 연대로 견인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이를 위해 단기적이고 전술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불일치에 대한 상호 이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오러지의 방북을 러시아와 북한의 과도한 밀착을 경계하는 중국이 러시아를 헤징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서 보면, 대러 헤징 차원에서의 중국의 대북 접근 구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3자 연대에 중국을 한 발짝 더 끌어들이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중러북 3자 연대 움직임을 보면, 중북관계는 미중 간의

상황관리 모드 속에서 러북관계 및 중러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양상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북한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중관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중국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이유였다. 최룡해는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온갖 도전과 풍파”라는 표현으로 암시하였고, 자오러지는 “전략적 상호신뢰 심화”라는 표현으로 신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조 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단기적이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서로 인정하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의 상황관리 모드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게 이해를 구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오러지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북관계 불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2018년 중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지난 3월 21일 중국을 방문한 김성남 당국제부장에게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표현 역시 국제정세에 따라 양국 관계가 일시적인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피로써 맺어진” 친선과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계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지 말자는 의미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안보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중국은 글로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대만 유사시 군사전략적 협조하에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북한 비핵화 등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국이 경도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연계하는 전략에 동의할 수 있다. ‘영토완정’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공유

한다는 명분하에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자오러지는 최룡해와의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키길 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호혜적 협력이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적 협력을 의미하지만 핵심은 경제협력이고 내용은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일 것이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결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경제건설에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난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건설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는 중국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아울러 식량 문제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의 가변성 때문에 언제든지 부족량을 채울 수 있는 안정적인 식량보급처 확보가 필요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든 북한 경제의 회생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대북 경제지원을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할 수 있다. 조만간 개통될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경제협력으로 포장된 대북 경제지원의 본격적인 통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정은의 올해 방중 문제이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월 시진핑의 방북 이후 5년 동안 개최되지 않고 있다. 반면, 팬데믹 종식 이후 중러 간에는 지난해 푸틴의 방중에 이어 조만간 재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러북 간에는 김정은의 지난해 방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푸틴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방중이 성사되면 중러북 사이에 정상외교의 균형이 맞추어지는 셈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중북관계가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을 중러북 3자 연대에 한 발짝 다가서도록

유인할 필요도 있다. 김정은의 방중 시기는 올해 연말 정도에 가능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푸틴이 방북할 가능성이 높고, 15기 최고인민회의 출범에 따른 여러 내부 문제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고위급회담 추진

이번 자오러지의 방북을 계기로 중북 사이에는 약속대로 고위급 외교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북관계의 진전은 우리 외교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미중 경쟁 가열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전략적 부담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미일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중 고위급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